

진화론과 청소년교육

길원평(부산대학교)

I 서론

청소년기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심리적으로는 매우 역동적이고 불안정한 단계에 있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성인의 역할과 규범을 이행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정체성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그런데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며,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 혹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한다.(박경애 외, 1993)

날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요인으로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김준호, 1993), 음란물과 유흥업소의 범람과 같은 타락한 사회 병리 현상(이현정, 1996), 이혼과 같은 가정 붕괴 현상(이순영, 1985) 등의 환경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서 청소년 내면에서의 도덕적 자아 붕괴 즉 도덕적 저항 능력 상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문용린,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이숙영 외, 1998)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의 도덕적 저항 능력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는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즉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서 인식하느냐 혹은 무가치한 존재로서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삶에 나타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자아 인식은 자신의 뿌리를 설명하는 기원관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자와 분자로부터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지금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 보일지라도, 근원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연한 결합체일 뿐이다. 반면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면, 자신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즉 뜻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의미보다도 훨씬 큰, 창조주에 의해서 부여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심영기, 1994)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에, 잘못된 기원관은 사회 전반의 도덕성 붕괴와 현세적이고 쾌락적인 사회 문화 형성을 일으키는 이론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

물론 기원에 관한 진리는 객관적이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생명과 우주의 기원은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생긴 실제적 사건이기에, 기원에 관한 질문의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우리의 취향에 따라 선택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기원에 관한 연구과정에서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염두에 두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기원에 관한 연구로부터 어떤 특정한 결론을 내리고 청소년들에게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기원에 관한 연구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수용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에게 가르

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분명치 않다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기원관은 단순히 그럴 듯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욱이 아직 비판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확실치 않은 특정한 기원 이론을 가르칠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인생관을 형성하는 사춘기 시절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왜곡되게 바라볼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서 학문 연구를 할 경우에는, 왜곡된 연구 결과가 세습이 될 위험도 있다. 그러기에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도, 확실치 않은 기원이론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 가르치려면 그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까지 분명히 소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도 않은 특정한 기원이론인 진화론이,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다른 대안에 대한 충분한 소개도 없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 논문에서는 진화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피교육자 즉 청소년이 어떤 기원이론을 맞다고 마음에 받아들여질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진화론만을 가르치고 있는 현행 교과과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생명과 우주의 기원관이 그 사람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대부분 추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별로 없다. 설문 조사 방법으로 기원에 대한 고교생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양승훈, 우현기에 의해서 한 적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원에 대한 관심도, 기원이론에 대한 지지율, 기원이론에 대한 사고의 일관성, 현행교과서에 대한 견해 등을 살펴보았다.(양승훈 외, 1988) 그들의 연구에서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시에 교과서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원 이론이 청소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설문 조사 방법과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3절에서는 설문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기원관의 분포와 결정시기, 그리고 기원관이 세계관, 도덕성, 종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하였다.

II 설문 조사 방법과 내용

부산의 P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에 속한 이공계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원관, 세계관, 도덕성, 종교 등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생활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99년 1학기 첫 수업 시간에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약 오백 명의 응답 자료 중에서 모든 설문 조사 문항을 성실하게 대답한 402명의 응답 자료를 선택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문항 내의 빈도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문항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생명의 기원관이 세계관, 도덕성, 종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설문 조사 대상이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일반적으로 인문, 사회계열 학생에 비하여 단순한 경향이 있기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설문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 가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해 볼 계획이다. 그리고 설문 조사 대상의 73%는 남자이었고, 27%는 여자이었는데, 성(性)과 관련된 도덕성을 묻는 문항 응답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다른 대부분의 문항 응답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 조사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부분은 생명과 우주의 기원, 그리고 마음의 근원에 대한 질문이다. 먼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으로서 창조주께서 동식물을 종류대로, 즉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구별되게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원자와 분자가 우연히 결합하여 원시 생명체를 이루고 점점 진화하여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이 생겨났다는 진화론을 소개한 후에, 어느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마음을 결정한 시기도 질문하였다. 그리고는 우주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으로서 창조주께서 우주를, 특히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셔서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과거 어느 순간에 우연히 폭발함으로써 우주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팽창하고 있으며 폭발 직후에 물질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별이 생기고 진화하여서 지금의 지구가 되었다는 빅뱅이론을 소개한 후에, 어느 이론을 지지하는지와 마음을 결정한 시기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원에 대한 두 가지 의견으로서 우리 안에 비물질적인 존재인 영혼이 있으며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몸(두뇌)이 결합하여서 인격적 활동 즉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이론과, 100% 몸(두뇌)만에 의해서, 즉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난다는 이론을 소개한 후에, 어느 이론을 지지하는지와 마음을 결정한 시기를 물었다.

설문 조사의 두 번째 부분은 세계관, 도덕성, 종교 등에 대해서 물어 보았다. 세계관에 관해서는 인생의 의미나 가치,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횟수, 죽음에 관한 생각에 잠길 때에 갖는 마음, 죽음 이후의 세계 즉 내세의 존재, 기적의 존재, 신(神)의 존재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으며, 도덕성에 관해서는 뇌물, 탈세 등의 탈법 행위, 이성(남녀)간에 결혼 전의 순결, 음란물을 처음 본 시기, 음란물을 본 후에 느끼는 죄책감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으며, 종교에 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가졌던 종교, 신앙심의 유지 여부, 자신이 가진 종교와 진화론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III 설문 조사 결과

[1] 기원관의 분포 및 결정 시기

이제부터 설문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명의 기원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가 10%,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가 6%, ‘진화론이 더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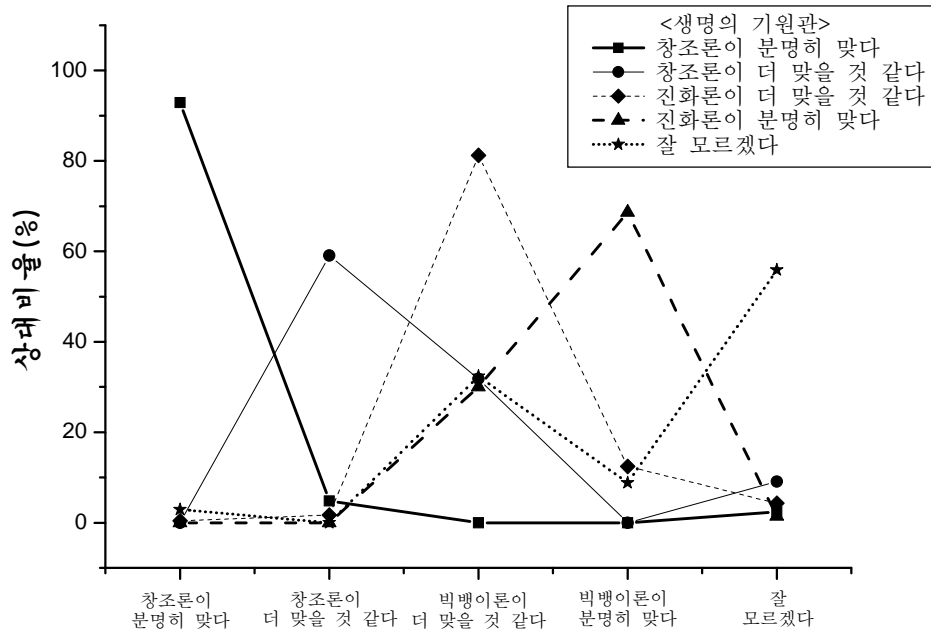
을 것 같다'가 58%,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가 17%, '잘 모르겠다'가 9%로 나타났으며, 우주의 기원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가 10%,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가 5%, '빅뱅이론이 더 맞을 것 같다'가 57%, '빅뱅이론이 분명히 맞다'가 20%, '잘 모르겠다'가 8%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생명의 기원관에 관한 응답 분포가 우주의 기원관에 관한 응답 분포와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근원관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혼과 몸(두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가 26%, '영혼과 몸(두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맞을 것 같다'가 58%, '100% 몸(두뇌)만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가 10%, '100% 몸(두뇌)만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이 분명하다'가 2%, '잘 모르겠다'가 4%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마음은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예상치 못했던 흥미로운 결과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진화론을 선택하였기에,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응답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원자와 분자가 우연히 결합하여 생명이 생겨났다는 진화론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 세계관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관과 마음의 근원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생명의 기원관으로 창조론 혹은 진화론을 선택한 것과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마음을 영혼과 몸의 결합, 즉 영적 활동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76%가 마음을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보았다. 이것은 의외지만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서 교육, 종교, 문화, 매스컴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받고 자란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생명의 기원관과 우주의 기원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는 설문 응답자를 생명의 기원관에 따라 다섯 군으로 나눈 후에, 각 군에 속한 응답자의 총수를 100%라 놓고 우주의 기원관에 따른 상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서 굵은 실선과 네모점은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생명의 기원관을 가진 응답자군의 우주 기원관을 나타내는 상대분포이다. 마찬가지로 얇은 실선과 둥근점은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얇은 파선과 마름모점은 '진화론이 더 맞을 것 같다'는, 굵은 파선과 삼각점은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는, 점선과 별표는 '잘 모르겠다'는 생명의 기원관을 가진 응답자군의 우주 기원관을 나타내는 상대분포이다.

그림 1로부터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생명의 기원관을 가진 응답자 군의 93%가 우주의 기원관에 대해서도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고 응답하였고,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명의 기원관을 가진 응답자군의 59%가 우주의 기원관에 대해서도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의 기원관에 따라 분류된 다섯 응답자 군은 우주의 기원관에 대한 질문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선호한다는 것을 그림 1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즉 생명의 기원관과 우주의 기원관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기원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생명의 기원관 결정시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 17%, '중학교'가 32%, '고등학교'가 34%, '고등학교 졸업 후(수능시험을 친 후)'가 4%, '아직 안 정했음'이 14%로 나타났다. 우주의



[그림 1] 생명의 기원관과 우주의 기원관 사이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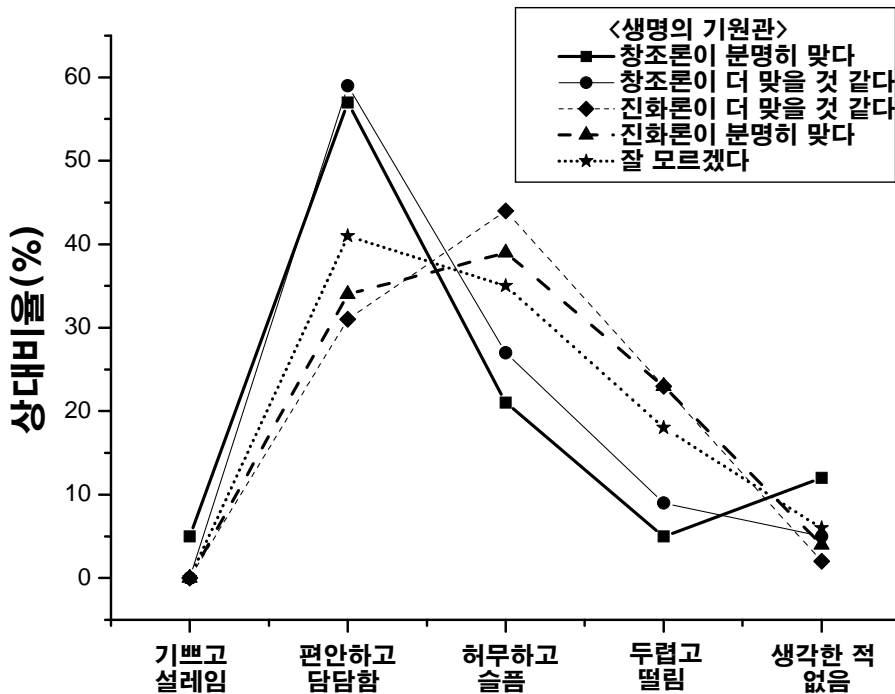
기원관 결정시기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 10%, ‘중학교’가 29%, ‘고등학교’가 44%, ‘고등학교 졸업 후(수능시험을 친 후)’가 5%, ‘아직 안 정했음’이 13%로 나타났으며, 또 마음의 근원관 결정시기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 18%, ‘중학교’가 25%, ‘고등학교’가 37%, ‘고등학교 졸업 후(수능시험을 친 후)’가 8%, ‘아직 안 정했음’이 12%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기원관의 결정 시기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학교이며, 그 다음은 초등학교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자신의 기원관을 결정하기에,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원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명의 기원관 결정 시기와 우주의 기원관 결정 시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흥미롭게도 제법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에 생명의 기원관을 결정한 응답자군의 82%가 우주의 기원관도 고등학교 때에 결정하였다. 이처럼 생명의 기원관 결정시기에 따라 분류된 다섯 응답자 군은 우주의 기원관도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이 결정하였다. 따라서 생명의 기원관과 우주의 기원관은 서로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기원관이 미치는 영향

2 - A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이제부터 기원관이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고민을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 물어 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 14%, ‘중학교’가 39%, ‘고등학교’가 33%, ‘고등학교 졸업 후’가 10%, ‘아직 없다’가 4%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대략 중학교 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고민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가치가 있다’가 78%로 가장 높았고, ‘약간 가치가 있다’가 13%, ‘가치가 거의 없다’가 2%, ‘가치가 전혀 없다’가 1%, ‘잘 모르겠다’가 6%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이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관과 인생의 가치에 대한 생각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생명의 기원관으로 창조론 혹은 진화론을 선택한 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생은 매우 가치가 있다’는 대답을 했다. 이렇게 인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자신 안에 영혼이 있으며 마음을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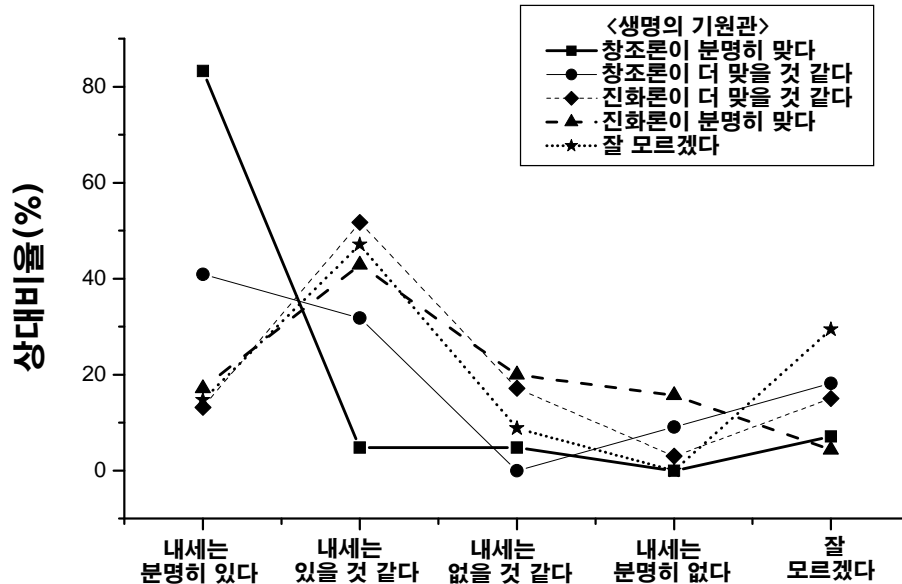


[그림 2] 생명의 기원관과 죽음에 대한 생각 사이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보았다. 닥쳐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횟수에 대한 조사 결과, ‘이제까지 한두 번’이 29%, ‘일 년에 서너 번’이 39%, ‘한 달에 서너 번’이 23%, ‘거의 매일’이 5%, ‘전혀 없다’가 5%로, 일년에 서너 번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로부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죽음에 관한 생각에 잠길 때에 갖는 마음에 대한 조사 결과, ‘기쁘고 설레임’이 1%, ‘편안하고 담담함’이 37%, ‘허무하고 슬픔’이 39%, ‘두렵고 떨림’이 20%, ‘생각한 적 없음’이 4%로, 허무하고 슬프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관과 죽음에 대한 생각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2에



[그림 3] 생명의 기원관과 내세관 사이의 상관관계

서 보듯이 창조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서는 편안하고 담담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서는 허무하고 슬프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렵고 떨린다고 대답한 비율도 창조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내세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내세는 분명히 있다’가 23%, ‘내세는 있을 것 같다’가 44%, ‘내세는 없을 것 같다’가 15%, ‘내세는 분명히 없다’가 5%, ‘잘 모르겠다’가 14%로, 대부분이 내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관과 내세에 대한 생각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 보았는데, 그림 3에서 보듯이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군의 83%가 내세는 분명히 있다고 대답하여 뚜렷한 내세관을 갖고 있으며,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응답자군의 41%가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대답하여 어느 정도 내세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응답자 군은 내세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내세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내세관의 차이가 결국 죽음에 관한 생각에 잠길 때에 갖는 마음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본다.

이 외에도 영혼과 신과 기적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 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영혼과 신과 기적이 존재한다고 대답하였다. 생명의 기원관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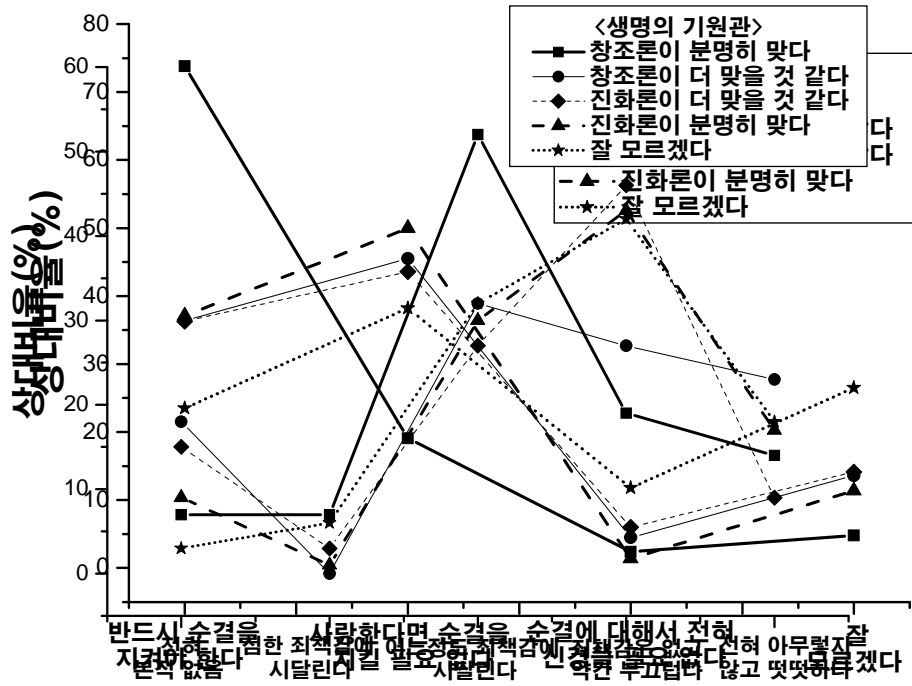
과,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군의 80% 이상이 영혼과 신과 기적이 분명히 있다고 대답하여 강한 확신을 표현하였지만, 나머지 응답자 군은 영혼과 기적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있다는 대답과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이 대략 절반으로 나누어졌다. 한편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군은 영혼과 기적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지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보다 조금 많아서 약간 부정적이었다.

2 - B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기원관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뇌물, 탈세 등의 탈법 행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 보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가 29%,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가 57%, ‘사회에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한다’가 13%, ‘사회에 적응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가 1%, ‘잘 모르겠다’가 1%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관과 탈법행위에 대한 생각 사이의 상관 관계 조사에서는 생명의 기원관으로 창조론 혹은 진화론을 선택한 것과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도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절대로 하면 안 된다’이었다.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뇌물, 탈세 등의 탈법 행위를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는 의지를 보여주기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이성간에 결혼 전의 순결에 대한 조사 결과,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가 39%, ‘사랑한다면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가 42%, ‘순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가 5%, ‘잘 모르겠다’가 14%로 나타났다. 생명의 기원관과 순결관 사이의 상관 관계 조사에서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 군의 74%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에, 나머지 응답자 군에서는 사랑한다면 순결을 지킬 필요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 조사로부터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 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음란물을 처음 본 시기를 물어 본 결과, ‘전혀 본 적이 없음’이 12%, ‘초등학교 6학년 이전’이 16%, ‘중학교’가 48%, ‘고등학교’가 19%, ‘고등학교 졸업 후(수능시험 친 후)’가 5%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때에 음란물을 처음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란물을 본 후에 느끼는 죄책감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음란물을 본 적이 없는 12%를 제외하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린다’가 3%, ‘어느 정도 죄책감에 시달린다’가 31%, ‘죄책감은 없고 약간 부끄럽다’가 41%, ‘전혀 아무렇지 않고 떳떳하다’가 12%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관과 음란물을 본 후에 느끼는 죄책감 사이의 상관 관계 조사에서는 그림 5에서 보듯이 창조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서는 어느 정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서는 죄책감은 없고 약간 부끄럽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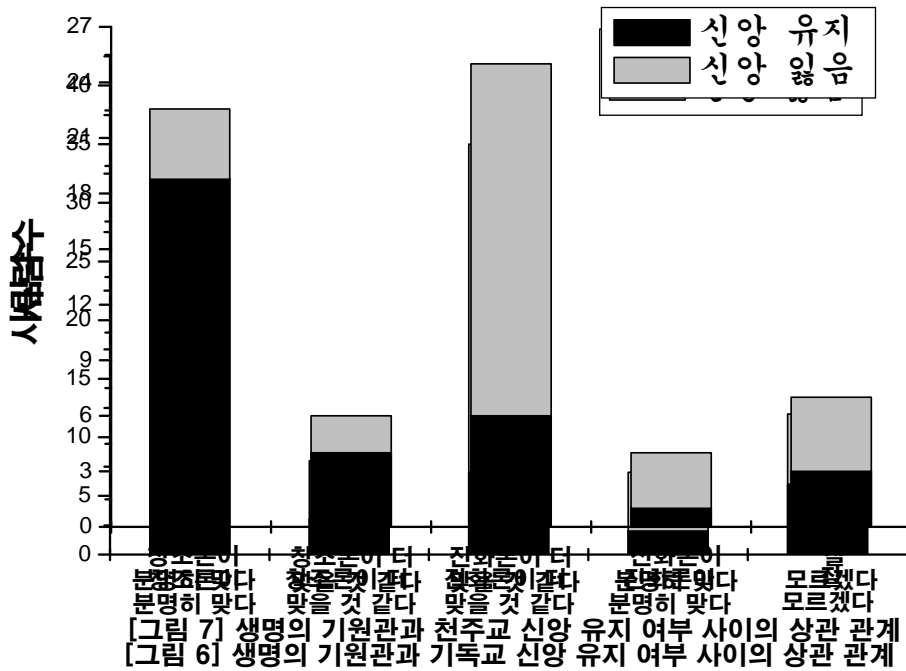
[그림 5] 생명의 기원관과 용량론을 본 후 왜 생명의 기원관을 진화론으로 선택한 원인을 상관계수

2 - C 기원관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기원관이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먼저 현재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가졌던 종교에 대한 조사 결과, 불교가 27%, 기독교가 25%, 천주교가 10%, 기타 종교가 1%, 종교 없음이 37%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믿었지만 현재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해 조사를 한 후, 종교별로 기원관과 신앙유지 여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의 경우는 그림 6에서 보듯이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 군은 16%만이 신앙을 잃어버린 반면에,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응답자군의 80%가,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군의 71%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군의 대부분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따라서 청소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잃는 과정에 진화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신이 가진 종교와 진화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의 경우는, ‘적대 관계(서로 정반대)’가 32%, ‘갈등의 관계(서로 약간의 불일치)’가 18%, ‘독립적인 관계(서로 별도의 영역에 적용)’가 17%, ‘조화의 관계(약간 독립적이지만 서로 조화)’가 19%, ‘융화의 관계(서로 하나가 되어서 전체적인 진리를 드러냄)’가 14%로, 적대관계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천주교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그림 7에서 보듯이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는 전혀 없었으며, 진화론이 맞다는 응답자가 창조론이 맞다는 응답자보다 더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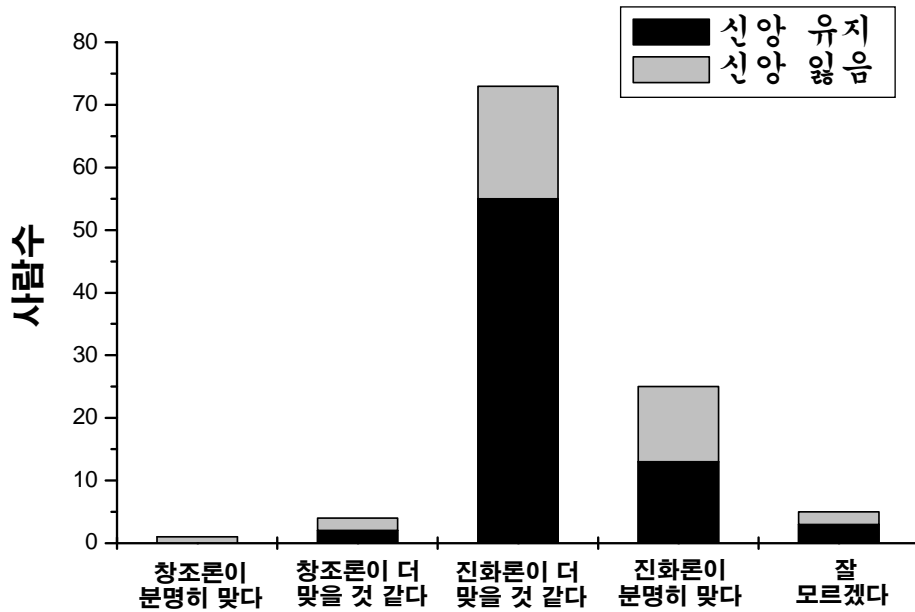
았다. 그렇지만 기원관과 신앙유지 여부 사이의 상관 관계 조사에서 창조론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응답자군의 33%만이 신앙을 잃어버린 반면에, 진화론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응답자군의 66%가, 진화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군의 75%가 신앙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군의 대부분이 천주교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으며, 기독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천주교 신앙을 잃는 과정에 진화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종교와 진화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천주교의 경우는, ‘적대 관계’가 14%, ‘갈등의 관계’가 26%, ‘독립적인 관계’가 24%, ‘조화의 관계’가 26%, ‘융화의 관계’가 10%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불교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그림 8에서 보듯이 대부분이 진화론이 맞다고 응답하였으며, 상당수가 진화론을 수용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종교와 진화론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불교의 경우는, ‘적대관계’가 4%, ‘갈등의 관계’가 14%, ‘독립적인 관계’가 40%, ‘조화의 관계’가 31%, ‘융화의 관계’가 12%로 나타나서, 독립적인 관계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로부터 불교인들은 진화론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생명의 기원관 조사에서는 89%가 진화론이 맞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진화론과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적대 관계’가 12%, ‘갈등의 관계’가 30%, ‘독립적인 관계’가 28%, ‘조화의 관계’가 24%, ‘융화의 관계’가 7%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종교가 없는 청소년 중에 상당수가 진화론과 종교 사이의 관계를 갈등 또는 적대의 관계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 생명의 기원관과 불교 신앙 유지 여부 사이의 상관 관계

따라서 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종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이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종교를 잃게 하거나 갖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기원관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의 P대학교 이공계열 신입생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먼저 생명의 기원관, 우주의 기원관, 그리고 마음의 근원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이 진화론과 빅뱅이론을 지지하면서도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은 영혼과 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이 인생을 매우 가치있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내세와 기적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진화론을 더 지지하고는 있지만 유물론자는 분명히 아니며, 오히려 영의 세계를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원관 결정시기에 대한 조사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이 기원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관과 우주의 기원관 사이의 상관관계 조사에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기원관이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창조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은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죽음을 생각할 때에 편안하고 담담하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은 막연한 내세관을 갖고 죽음을 생각할 때에 허무하고 슬프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두렵고 떨린다고 대답한 비율도 창조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원관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서, 기원관 선택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탈법행위를 반대하였다. 순결관에 대한 조사에서 창조론이 분명히 맞다는 응답자 군의 대부분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에, 나머지 응답자 군에서는 사랑한다면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창조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서는 음란물을 본 후에 어느 정도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대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에서는 죄책감은 없고 약간 부끄럽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종교별로 기원관과 신앙유지 여부 사이의 상관 관계 조사로부터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우에는 진화론을 선택한 응답자 군의 대부분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로부터 청소년들이 기독교와 천주교 신앙을 잃어버리는 과정에 진화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진화론이 불교 신앙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기원관이 삶의 전반 즉 세계관, 도덕성, 종교 등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갖지 못한 진화론을 인생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고등학교 때에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하며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V 해결을 위한 제언

진화론이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진화론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이 학문의 주류가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나의 제언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원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공교육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어렵기에, 창조과학센터 등을 통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 진화에 대한 과학적 비판, 성경에 대한 과학적 변호, 창조론적 세계관의 정립 등을 다룬다. 현재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창조과학 강좌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교육하고 있다.

둘째는 공교육기관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여론조성과 교육부에 법적인 압력을 넣는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의 방학 과제로 배부되는 책 중에 크리스티교는 진화론을 반대하고 있기에 잘못되었다고 초등학생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을 내포한 구절이 있다. 이것은 특정종교를 비방하며 확실치 않은 진화론을 분별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강요한다고 법적인 제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는 진화론의 문제점을 연구하여 대학교 내에서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고, 일반 학회에서 발표하며 학술잡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학문 내의 문제이기때문에, 궁극적 해답은 학문 안에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길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연구기관이 진화론만을 연구하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화론을 반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학회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창조가 진리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이것도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오랜 시간동안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연구하여서 조금씩 창조과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해 나갈 교수와 대학원생, 즉 헌신된 학문선교사들이 이 시대에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은 암울한 진화론과 인본주의 시대이지만,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창조과학과 신본주의가 꽃피우며, 21세기는 창조과학의 시대라고 불려지기를 소망하며, 이 일에 조그만 노력을 심어본다.

참고 문헌

김준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문용린, 『청소년의 도덕성, 법의식 발달, 비행경향성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박경애 외, 『청소년 자살 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3.

심영기, “목적원인론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들”, 『통합연구』, 7(4), 1994, pp. 113 ~ 137.

양승훈, 우현기, “기원에 대한 고교생들의 의식구조 조사”, 『경북대 논문집(자연과학)』, 45, 1988, pp. 231 ~ 238

이숙영 외, 『청소년 도덕성 증진 프로그램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8.

이순영, 『도덕성 발달과 지능 및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5.

이현정,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 매체 접촉도와 성 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심리학』, 서울, 서원, 1993.